

2020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및 참석자

1. 일시 : 2020. 4. 3. (금) 10:00
2. 장소 : 바롬인성교육관 1층 103호 세미나실
3. 참석자(총9명 중 9명 참석)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이윤선 기획처장, 장혁기 학생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황선진 총학생회장, 신은진 부총학생회장, 신동인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박영미 회계사
 - 라. 동문대표 : 최형심 총동창회장

■ 안건

1. 2019학년도 자금결산(안) 심사·의결

■ 내용

1. 2019학년도 자금결산(안) 심사·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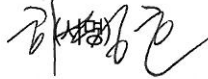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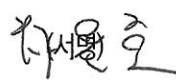
재무팀장이 2019학년도 자금결산(안) 세입과 세출을 설명하다.

- 국고보조금 수입 추경 예산액 대비 결산 액에서 약10억 원 차액이 발생 하는 원인은?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금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았다. 2019학년도에도 예상했었으나 교부되지 않았다.
- 학생 인원 감축을 반영하더라도 학생지원비가 2019학년도에 과거 3년간 실적 대비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 2018학년도에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던 학생지원비 예산이 줄었다.
- 국고지원사업 예산이 2017학년도부터 계속 감소되는데 교부금이 줄어 학생지원비도 감소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학부교육선진화지원사업과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지원비 예산이 점차 감소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내부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학생지원비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국고지원사업이 폐지될 경우 학생지원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교비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 할지에 대한 기준과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가?

- 예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 국고지원사업이 우리 대학의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 각 사업은 명칭이 바뀌어 진행이 되었고 폐지되었던 적은 없다. 국고지원사업 선정이 되도록 지표를 잘 관리해야 한다. 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특성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
- 2020학년도에는 지출 감소를 위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위원장이 2019학년도 자금결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2020년 4월 3일

위원장	이윤선	 (서명)
위원	장혁기	 (서명)
위원	하성호	 (서명)
위원	황선진	 (서명)
위원	신은진	 (서명)
위원	신동인	 (서명)
위원	김문규	 (서명)
위원	박영미	 (서명)
위원	최형심	 (서명)
기록	차은호	 (서명)